

# 음악영재의 환경인식 및 배경변인별 인식 차이\*

김 용 희\*\*

본 연구는 전국의 12개 음악영재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환경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또 배경변인에 따른 하위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배경변인별 하위집단은 전공·음악교육 시작 연령·전공훈련 시작 연령·연습시간에 따라 구분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교사의 후원, 그리고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후원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가족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악적 도움이나 음악의 사회적 기회에 관하여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위집단별 분산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음악교육 시작 연령·전문적 훈련 시작 연령·전공·연습시간과 같은 요소들이 학생들의 환경 인식에 영향을 끼침을 나타냈다. 또한 음악영재를 위한 사회적 기회가 체계적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 주제어: 음악영재, 영재교육, 교육환경

## 차 례

- I. 서론
- II. 음악영재의 특성 및 환경의 영향
  - 1. 음악영재의 특성
  - 2. 환경의 영향
- III. 연구방법
- IV. 연구 결과
  - 1. 음악영재의 환경 인식에 관한 기술 통계
  - 2. 학생들의 하위집단별 환경 인식
- V. 요약 및 결론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한국연구재단-2010-SZ2010018-G0008)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musica@ginue.ac.kr

## I. 서론

2001년 영재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각 시·도 교육청 산하의 음악영재교육원과 음악영재학급,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같은 정부 후원의 음악영재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까지 운영되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 산하의 음악영재기관은 총 20개 기관 30학급에 달한다(이미경, 2010a). 이와 같이 음악영재기관 설립 및 운영이 정착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영재의 개념적 정의 및 선발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음악영재에 대한 학문적 정의(오주일, 2004; 현경실, 2005), 선발 혹은 판별(이미경, 2005; 이미경, 2010a; 현경실, 2005), 프로그램(고영신, 2009; 이미경, 2010b 등)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국내 음악영재의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음악영재의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음악영재의 발달에 환경의 영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성경희, 2005; Bloom, 2004; Ericsson, Nandagopal and Roring, 2005 등). 반면에 해외에서는 음악영재의 환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학자들은 음악영재 부모와 가족의 역할(Dai and Schader, 2002; Distin, 2006; Harris, 2009; Sosniak, 1985a, 1985b), 교사의 역할(Kozzin, 2002;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Sand, 2002), 사회적 기회의 역할(Chin and Harrington, 2007), 연습의 역할(Ericsson, Nandagopal and Roring, 2005)에 관하여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음악영재의 환경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음악교육과 관련된 환경적 연구라면 일반 학생의 음악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김세원, 2006 등)와 다중지능의 관점에서 본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연구(정지원, 2004)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악영재의 부모·교사·사회적 기회 환경 연구에 관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한 환경연구의 하나로써,

국·공립 예술영재교육원 및 예술영재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인식하는 환경에 관하여 조사한다. 설문지법을 사용하는 본 연구는 영재들의 직접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인식된 환경을 조사한다. 또한 이들의 환경 인식이 학생들의 전공·음악교육 시작 시기·전공훈련 시작 시기·연습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조사한다. 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음악영재교육에 있어서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음악훈련이나 전공훈련을 위한 결정적 시기(Gardner, 1983), 특정 전공 악기를 시작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Shutter, 1968, Wright, 2002), 치열한 연습의 필요성(Ericsson, Nandagopal and Roring, 2005) 등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영재학생들은 자신의 음악영재성, 부모를 포함한 가족 환경, 교사 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음악영재학생들의 환경 인식은 학생들의 연령, 전공, 음악교육 시작 연령, 전문적 훈련 시작 연령, 연습시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본 연구에서 ‘음악영재’라 함은 우리나라 예술영재교육원 및 예술영재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또한 이 연구는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및 충청권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이 연구의 결과는 이 지역에서만 일반화할 수 있다.

## II. 음악영재의 특성 및 환경의 영향

### 1. 음악영재의 특성

포푸섹(Popusek, 1996)은 음악적 자극을 구별하고 처리하는 모습이 인생의 매우 초기부터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음악의 조기발달의

속성은 음악발달의 조기완성으로 이어진다(Gardner, 1983). 이러한 음악의 속성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음악에서 조기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음악적 능력의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주장한다(Shutter, 1968, Gardner, 1983). 또한 이와 같은 음악의 속성은 음악영재의 조기 발굴을 가능하게 한다(Gardner, 1983,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또한 어떤 전공은 특별히 전문적 훈련을 일찍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만7세 이전에 전문적 훈련을 시작하여야 한다(Shutter, 1968).

음악영재는 소리에 대한 민감성, 뛰어난 음 지각력 혹은 음감, 뛰어난 리듬감, 음악에 대한 강한 관심, 음악을 빨리 배우는 능력, 음악적 표현력, 열정, 인내, 작곡과 즉흥연주 능력 등을 가진다(김용희, 2010;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Wojcik, 2002, Zimmerman, 2008). 많은 음악영재들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거나, 선율을 귀로만 듣고도 정확히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다. 또 음정에 맞게 노래하고, 음높이나 음량, 음색 등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들을 수 있고, 박과 템포를 정확히 유지하고 몸으로 강세를 느끼는 등의 리듬감을 가진다(김용희, 2010; Baum, Owen and Orek, 1996;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그리고 음악에 즐겁게 반응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장기간의 연습에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김용희, 2010; 태진미, 2006). 특별히 작곡 분야의 영재들은 어린 시절에는 다른 분야의 음악영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10, 11세경부터 기존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는 음악을 남과 다르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Gardner, 1983).

프리먼(Freeman, 1999)에 따르면 음악영재들은 소위 ‘결정 경험(crystallizing experience)’을 한 경우가 많다. 결정 경험이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특별한 계기를 말하는데, 이를 통하여 음악영재들은 음악에 평생을 헌신하고 소명을 느낀다. 때로 이러한 계기는 교사에 의하여 제공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음악가의 예로서 드뷔시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음악영재는 결정 경험이 너무도 극적이고 분명하다고 말한다(김용희, 2010).

이외에 음악영재들은 다른 분야의 영재들과 마찬가지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Wright, 2002). 또한 영재의 특성상 음악영재에게도 속진(acceleration)이 필요하다. 교사가 속진을 하지 않을 경우 음악영재는 다른 분야의 영재와 마찬가지로 지루해하고 당황해할 수 있다(Wright, 2002). 또한 칙센트미하이(Chikszentmihalyi)는 어떤 분야에 극도로 뛰어난 사람이 동료와 잘 어울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였다(Winner, 1988). 켐프(Kemp, 1996, Dai and Schader, 2002, p.50에서 재인용)는 음악영재가 내성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반면 Chin and Harrington(2007)은 연주 전공의 음악영재는 비연주 전공의 음악영재보다 외향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하였다(김용희, 2010).

## 2. 환경의 영향

블룸(Bloom, 1985)과 소스니엑(Sosniak, 1985a, 1985b)은 음악영재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요소를 강조한 대표적 학자이다. 소스니엑에 따르면, 음악사에서 위인들이 어린 나이부터 이름을 떨친 이야기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의 음악가들은 어린 나이에 비상한 음악재능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긴 훈련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만투제프스카(Mantuzewska, 1990)도 음악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 16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Chin and Harrington, 2007). 해리스(Harris, 2009)는 터만 및 오덴(Terman and Oden, 1947)의 주장을 인용하여 지능검사점수처럼 선천적인 요소를 나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도 실은 학생의 교육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아버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자들은 인생의 초기에 부모의 지원과 격려에 의하여 음악이 주는 내적 보상을 받은 어린이가 동기, 강한 집중력, 열정과 함께 음악학습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Harris, 2009,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부모는 어린이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음악적인 역할 모델 혹은 비공식적인 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녀의 연습을 안내하고 감독하고, 오디션

정보를 얻어오는 등 실질적으로 돕는다. 또한 레슨비, 연주비, 악기구입 등 재정적 부담을 감수할 뿐 아니라,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정서적으로 격려하는 역할도 한다(김용희, 2010;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Sosniak, 1985a).

슈터-다이스 및 가브리엘(Shuter-Dyson and Gabriel, 1981) 또한 어린 이들의 잠재적 재능을 발달시키는 데 음악적 도전을 주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에서 재인용). 이에 대하여 디스틴(Distin, 2006)은 19세기까지 서양에 존재했던 ‘음악가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바흐나 모차르트 가문처럼 서양의 음악가족은 다양한 전공의 전문적 혹은 아마추어 음악가로 구성되었다. 그러한 가정의 자녀는 부모에게 음악을 배우거나, 부모의 음악인 친구들이 수시로 놀러오고, 가정에서 연주를 하고 음악에 관하여 토론하고, 장시간 연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성장했다(Distin, 2006; Sosniak, 1985a).

학생에게 맞는 기대 수준,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 각 학생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김용희, 2010; 태진미, 2006; Harris, 2009) 음악영재교육을 위하여 교사는 단순한 기교적 지도 이외에 이론과 미묘한 해석적 차이를 가르쳐주어야 하는데, 라이트(Wright, 2002)는 영재학생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좋은 교사는 영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으며, 실력이 뛰어나고, 특별한 지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과 내용을 바꾼다(Chin and Harrington, 2007;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그리고 어린 나이의 영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는 인성이 따뜻하고, 레슨을 재미있게 하고, 어린이를 좋아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Sloboda and Howe, 1991, Harris, 2009에서 재인용; Sosniak, 1985a). 학생의 실력이 향상하는 정도에 따라 그에 합당한 교사로 바꾸어야 하며, 어떤 교사는 알아서 자기보다 더 나은 교사에게 학생을 소개해주기도 한다(Sosniak, 1985a; Wright, 2002).

음악영재학생을 위한 교사의 교수 유형은 다양한 것처럼 보인다. 20세기의 유명한 바이올린 교사였던 줄리아드 음악학교(Juilliard School of

Music)의 갈라미언(Galamian)은 권위적이었고 엄격했으며, 자신이 가르치지 않은 보잉이나 핑거링을 용납하지 않았다. 반면에 그의 제자인 딜레이(DeLay)는 민주적이고 유연했으며 학생들의 그릇과 성격을 재빨리 파악하여 각 학생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곤 했다. 그리고 그 중에 뛰어난 학생에게는 더욱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고 한다(Kozzin, 2002; Sand, 2000).

학자들은 음악캠프, 영재원이나 영재학급 등 음악영재학생이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동료 음악가와 협동하는 사회적 기회도 음악영재 발달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외국의 학자들은 음악캠프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외국의 음악영재 대부분은 음악캠프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용희, 2010; Chin and Harrison, 2007; Sosniak, 1985a). 그리고 음악회나 다른 음악인들과의 만남도 음악영재 학생에게 중요하다고 한다. 음악회는 학생이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대중적인 공연에 익숙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음악적 자존감을 향상시킨다(Chin and Harrington, 2007; Sosniak, 1985a). 또한 음악영재 학생이 성취된 전문 음악가를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동기와 열망을 부여하고 때로는 멘토를 만나게 해준다(Chin and Harrington, 2009).

학자들은 영재학생에 대한 언어적·정서적 격려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가진다고 말한다(김용희, 2010; Bloom, 1985; Dai and Schader, 2002; Sosniak, 1985). 많은 영재아들은 그들의 재능에 대한 칭찬이나 칭송이 음악적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다(Chin and Harrington, 2007; Sosniak, 1985a). 앞에서 언급했던 딜레이도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Kozzin, 2002).

### Ⅲ. 연구방법

연구의 참여자( $N=202$ )는 연구에 자원하기로 허가한 전국 12개 국공립 음악영재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할당표집 방법을 사용한 이 연구

에서는 각 지역별 음악영재교육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전국의 16개 영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강원, 광주, 대구, 부산 지역으로부터는 설문지가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및 충청권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되었고,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이 지역에서만 일반화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령은 9세부터 18세 사이였으며, 초등학교 158.5%( $n=118$ ), 중학생이 35.7%( $n=72$ ), 고등학생이 5.5%( $n=11$ )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은 국악이 10.4%( $n=21$ ), 양악이 89.6%( $n=181$ )이었으며, 양악 중에서 현악기 전공 38.2%( $n=69$ ), 피아노 32.0%( $n=58$ ), 관악기 18.2%( $n=33$ ), 타악기 2.8%( $n=5$ ), 성악 6.6%( $n=12$ ), 작곡 2.2%( $n=4$ )였다. 전공별 학생들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특별히 작곡과 타악기 전공 학생 수가 적으나, 이 또한 우리나라 음악영재기관에 재학 중인 모집단 학생들의 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결과 분석시 타악기는 관악기 군에 묶어서 함께 통계 처리하였다(이하 관악기 군으로만 표기). 작곡 전공자의 표본 또한 너무 작기는 하지만 작곡영재만의 특성을 묻는 문항(6번)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 처리하였다.

학생들이 음악교육을 처음 시작한 연령은 3-5세 사이가 26.0%( $n=51$ ), 6-7세가 51.5%( $n=101$ ), 8세 이후가 22.4%(44.0%)이며, 6명은 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전공훈련을 처음 시작한 연령은 취학 전(7세 이전)이 39.0%( $n=78$ ), 초등 저학년(8-10세 사이)이 34.0%( $n=68$ ), 초등 고학년 이후(11세 이후)가 27.0%( $n=54$ )이며,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하루 평균 연습시간은 1시간미만이 14.4%( $n=29$ ), 1-2시간 35.3%( $n=71$ ), 3-4시간 31.3%( $n=63$ ), 5-6시간 14.9%( $n=30$ ), 7-8시간 3.0%( $n=6$ ), 8시간 이상 1.0%( $n=2$ )이며,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음악영재학생이 인식하는 자신의 환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고찰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4개의 범주, 4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학생의 연령,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 외에, 설문지의 범주는 (1) 학생 자신의 영재성 인식을 묻는 문항들(1-10번; 태진미, 2006; Baum, Owen and Orek, 1996; Gardner,

1983, Kemp, 1996;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Wojcik, 2002, Wright, 2002 참조) (2) 부모를 포함한 가족 환경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들(11-21번; Chin and Harrington, 2007; Dai and Schader, 2002; Distin, 2006; Harris, 2009;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Sosniak, 1985a 참조) (3) 교사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들(23-32번; 태진미, 2006; Chin and Harrington, 2007; Freeman, 1999; Harris, 2009; Sosniak, 1985a; Wright, 2002 참조) (4) 사회적 환경에 관한 인식(33-41번; Bloom, 1985; Chin and Harrington, 2007; Dai and Schader, 2002; Sosniak, 1985a 참조)이었다. 각 문항들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1> 설문지의 문항 내용

| 범주         | 내 용                                                                               |
|------------|-----------------------------------------------------------------------------------|
| 인구통계학적 배경  | 연령<br>성별<br>전공악기<br>음악을 처음 배운 나이<br>전공악기를 처음 배운 나이<br>재학 중인 학교 종류<br>연주경험<br>연습시간 |
| 자신의 음악영재성  | 소리에 대한 민감성<br>리듬감<br>음감<br>작곡의 즐거움<br>집중력<br>결정경험<br>자신의 성격                       |
| 부모 및 가족 환경 | 가정의 음악적 분위기<br>가족의 연습에 대한 감독 및 안내<br>정서적 격려<br>재정적 지원                             |
| 교사         | 결정 경험의 제공<br>인격적 이해<br>역할 모델 제공<br>교사의 지식 혹은 실력<br>실력발달에 따른 교사의 교체                |

|        |                                                                            |
|--------|----------------------------------------------------------------------------|
| 사회적 기회 | 음악 캠프<br>마스터 클래스<br>콩쿠르<br>연주 경험<br>음악인과의 만남<br>동료와의 만남<br>주변의 칭찬 및 정서적 격려 |
|--------|----------------------------------------------------------------------------|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먼저 개방형 10문항의 예비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다음에 구성된 예비설문지를 2010년 7월 서울의 Y중학교 영재학급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설문지의 응답을 바탕으로 2010년 8월에 본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0년 9월 중 전국의 16개 음악영재 교육기관에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배부하였다. 기술연구이면서 설문연구인 본 연구를 위하여 할당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각 지역별 음악영재기관의 수에 따라 표본의 수를 안배하였다. 발송된 설문지는 동봉된 반송 봉투에 의하여 201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우편을 통하여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1개 각 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의 연령대, 전공, 음악교육 시작 연령, 전문적 훈련 시작 연령, 연주경험 횟수, 연습 시간을 각각 변인으로 삼아 문항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와 변량분석은 설문조사를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기술통계는 퍼센티지 혹은 평균치와 같은 중심경향값(central tendency)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원분산분석은 어떤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 사이의 통계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Casey, 1992).

## IV. 연구 결과

### 1. 음악영재학생의 환경 인식에 관한 기술통계

<표 2>는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주는 데, 이 표에서는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항에 따라 결측이 생긴 경우도 있다. 1-10번 문항은 학생들 자신의 음악영재성에 관한 인식(1-9번)과 기본 성격(10번)에 관한 질문이다(태진미, 2006, Baum, Owen and Orek, 1996, Gardner, 1983, Kemp, 1996,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Wojcik, 2002, Wright, 2002). 1-5번 문항에서는 63.2%의 학생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음악에 관한 집중력을 질문하는 문항 중 하나인 “음악 연습을 오래 해도 힘들지 않다”는 문항(7번)에 대해서는 28.4%의 학생만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11-22번은 학생들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 환경에 관한 문항이다(Dai and Schader, 2002, Chin and Harrington, 2007, Distin, 2006, Harris, 2009, Mareck-Schroer and Schroer, 1993, Sosniak, 1985a). 학생들은 가족의 정서적·물질적인 도움에 관해서 대체로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가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문항(22번)에서 76.0%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23-32번은 학생들의 교사에 관한 인식을 질문한다(Chin and Harrington, 2007, Freeman, 1999, Harris, 2009, Wright, 2002, Sosniak, 1985a). 70%가 넘는 학생들은 “인격적으로 이해해주는 교사와의 만남”(25번), “교사로부터의 영감 및 감동”(26번), “기량 발달에 있어서의 교사의 도움”(32번)에 관한 문항에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33-41번은 학생들의 사회적 기회 환경에 관한 인식을 질문한다(Bloom, 1985, Chin and Harrington, 2007, Sosniak, 1985a, Dai and Schader, 2002). 학생들은 “음악캠프 참여”(33번)나 “마스터클래스 참여”(34번)와 같

은 음악적 사회적 기회 환경에 대하여 각각 16.2%와 16.4%만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2> 학생의 환경인식에 관한 기술통계

|                        | <i>n</i> | <i>M</i> | <i>SD</i> |
|------------------------|----------|----------|-----------|
| 1. 소리에의 민감성            | 202      | 3.90     | 0.80      |
| 2. 선율 기억력              | 202      | 3.93     | 0.79      |
| 3. 박자/리듬 감각            | 201      | 3.61     | 0.87      |
| 4. 음높이 구분 및 음정의 정확한 표현 | 202      | 3.75     | 0.91      |
| 5. 음높이, 음량, 음색 차이 구분   | 202      | 3.57     | 0.94      |
| 6. 음악 창작의 즐거움          | 201      | 3.36     | 1.14      |
| 7. 음악 연습의 즐거움          | 202      | 2.93     | 1.01      |
| 8. 음악에 대한 집중           | 202      | 3.46     | 1.00      |
| 9. 음악 진로에 대한 결심        | 201      | 3.92     | 1.09      |
| 10. 내성적 성격             | 200      | 2.58     | 1.28      |
| 11. 가정의 음악적 자극 풍부함     | 201      | 3.39     | 1.19      |
| 12. 가정의 음악 감상 기회 풍부함   | 201      | 3.36     | 1.20      |
| 13. 가정에서 독보나 연주법을 배움   | 201      | 2.72     | 1.37      |
| 14. 가족의 연주 기술 등 음악적 도움 | 202      | 2.71     | 1.23      |
| 15. 가족 공동 연주 기회        | 202      | 2.44     | 1.36      |
| 16. 가족의 음악 비평 및 조언     | 201      | 3.58     | 1.14      |
| 17. 가족 연주로부터 감동 경험     | 201      | 2.36     | 1.34      |
| 18. 가족의 음악 연습 관여 정도    | 202      | 3.54     | 1.20      |
| 19. 가족 간 음악 관련 대화 및 토론 | 202      | 3.06     | 1.24      |
| 20. 가족의 칭찬 및 격려 정도     | 202      | 3.90     | 0.98      |
| 21. 가족의 음악적 어려움 도움     | 202      | 3.73     | 1.13      |
| 22. 가족의 재정적 지원         | 202      | 4.07     | 0.94      |
| 23. 전공 교사를 통한 음악 전공 결정 | 201      | 3.29     | 1.31      |
| 24. 전공 교사의 음악적 진보 방해   | 202      | 2.45     | 1.27      |
| 25.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교사 만남   | 202      | 4.15     | 0.93      |
| 26. 교사로부터의 영감 및 감동     | 202      | 4.01     | 1.04      |
| 27. 전공 교사로부터의 음악기초교육   | 202      | 3.24     | 1.34      |
| 28. 전공 교사의 음악이론/음악사 도움 | 202      | 3.56     | 1.09      |
| 29. 전공 교사의 학력 및 경력     | 201      | 3.61     | 1.06      |
| 30. 기량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사   | 200      | 3.00     | 1.30      |
| 31.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조절     | 202      | 3.82     | 1.01      |
| 32. 기량 발달에 있어서의 도움     | 201      | 4.09     | 0.92      |

|                       |     |      |      |
|-----------------------|-----|------|------|
| 33. 국내외 음악 캠프 참여      | 202 | 2.29 | 1.21 |
| 34. 마스터 클래스 참여        | 201 | 2.39 | 2.47 |
| 35. 콩쿠르 자주 참여         | 201 | 2.93 | 1.21 |
| 36. 대중 앞에서의 연주 기회 정도  | 200 | 3.39 | 1.14 |
| 37. 음악계 인사 만남 기회 정도   | 201 | 3.08 | 1.17 |
| 38. 동료와의 공동 연주 기회     | 201 | 3.09 | 1.22 |
| 39. 동료 연주 관람 정도       | 202 | 3.31 | 1.23 |
| 40. 동료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칭찬 | 202 | 3.96 | 0.99 |
| 41. 교사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칭찬 | 202 | 3.99 | 0.93 |

## 2. 학생들의 집단별 환경 인식

### 1) 전공

자신의 음악영재성 인식에 관한 전공별 차이를 살펴보면, “음높이 구분 및 음정의 정확한 표현”(4번)에 있어서 작곡-성악-피아노 순으로, “음높이, 음량, 음색 차이 구분”(5번)에 대해서는 작곡-피아노-성악 전공 등의 순으로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음악 창조의 즐거움”(6번)에 있어서는 작곡 전공 집단이 다른 집단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어 전원이 만점을 나타내고, “음악전공에 대한 결심”(9번)에 있어서도 작곡 전공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작곡 집단의 표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전공은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중 “가정에서 독보나 연주법을 배움”(13번), “가족의 연주 기술 등 음악적 도움”(14번), “가족 공동 연주 기회”(15번), “가족 연주로부터 감동 경험”(17번) 문항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정에서 독보나 연주법을 배움”(13번), “가족의 연주 기술 등 음악적 도움”(14번) 문항에서는 성악 전공 학생들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국악 전공 학생들은 “가족의 연주 기술 등 음악적 도움”(14번), “가족 공동 연주 기회”(15번), “가족 연주로부터의 감동 경험”(17번)의 문항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작곡 전공 학생들은 “가족의 연주 기술 등 음악적 도움”(14번)에 관하여 가장 낮

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교사 환경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 중 “전공 교사의 음악이론 및 음악사 도움”(28번), “기량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사”(30번)에서 전공 악기 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둘 다 피아노 전공의 학생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으며, “기량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사”(30번) 문항에서는 국악 전공 학생이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전공은 사회적 기회 환경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 중 “콩쿠르 자주 참여”(35번), “교사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칭찬(41번)”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콩쿠르 자주 참여”(35번)에는 피아노 전공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으며, “교사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칭찬”(41번)에서는 작곡 전공의 학생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두 문항 모두 국악 전공의 학생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표 3> 전공악기 집단별 평균 차이

| 문항                | M    |      |      |      |      |      |      | Sig.     |
|-------------------|------|------|------|------|------|------|------|----------|
|                   | 국악   | 피아노  | 현    | 관    | 작곡   | 성악   | 전체   |          |
| 4. 음높이 구분 및 음정표현  | 3.52 | 3.93 | 3.68 | 3.47 | 4.50 | 4.25 | 3.75 | 0.016*   |
| 5. 음높이, 음량, 음색 구분 | 3.14 | 3.86 | 3.46 | 3.39 | 4.50 | 3.83 | 3.57 | 0.004**  |
| 6. 음악 창작의 즐거움     | 2.81 | 3.71 | 3.31 | 3.16 | 5.00 | 3.00 | 3.36 | 0.001*** |
| 9. 음악진로에 대한 결심    | 4.29 | 4.19 | 3.65 | 3.73 | 4.50 | 3.92 | 3.92 | 0.028*   |
| 13.가정에서 독보/연주법 배움 | 1.95 | 2.77 | 2.65 | 2.95 | 2.50 | 3.58 | 2.72 | 0.024*   |
| 14.가족으로부터 연주기술 도움 | 2.10 | 2.69 | 2.99 | 2.55 | 1.50 | 3.17 | 2.71 | 0.010**  |
| 15. 가족 공동 연주 기회   | 1.43 | 2.38 | 2.77 | 2.42 | 1.75 | 2.83 | 2.44 | 0.003**  |
| 17. 가족 연주로부터 감동경험 | 1.57 | 2.28 | 2.57 | 2.42 | 1.75 | 2.83 | 2.36 | 0.023*   |
| 28. 전공교사의 음악이론 도움 | 3.62 | 3.86 | 3.22 | 3.63 | 3.50 | 3.75 | 3.56 | 0.035*   |
| 30.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사 | 2.33 | 3.30 | 3.09 | 2.66 | 3.25 | 3.17 | 3.00 | 0.035*   |
| 35. 콩쿠르 자주 참여     | 2.35 | 3.47 | 2.97 | 2.42 | 2.75 | 2.92 | 2.93 | 4.473**  |
| 41. 재능에 대한 교사의 칭찬 | 3.43 | 4.03 | 3.99 | 4.12 | 4.75 | 4.25 | 3.96 | 3.452**  |

\* p<.05, \*\* p<.01, \*\*\* p<.001

## 2) 음악교육 시작 연령

자신의 음악영재성 인식에 대한 음악교육을 시작한 연령대별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아기(5세 이전)에 음악교육을 시작한 학생들이 “소리에의 민감성”(1번), “박자/리듬 감각”(3번), “음높이 구분 및 음정 표현”(4번), “음악 창작의 즐거움”(6번) 문항에서 다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부모를 포함하는 가정환경 인식에 있어서, 유아기(5세 이전)에 음악교육을 시작한 학생 집단은 “가정의 음악적 자극 풍부함”(11번), “가정의 음악 감상 기회 풍부함”(12번), “가정에서 독보나 연주법을 배움”(13번), “가족 연주로부터 감동 경험”(17번)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교사 환경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음악교육을 시작한 연령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사회적 환경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유아기에 음악교육을 시작한 집단은 “대중 앞에서의 연주”(35번), “음악적 재능에 관한 칭찬”(36번), “음악계 인사 만남 기회 정도”(37번), “동료와의 공동 연주 기회”(38번), “동료 연주 관람”(40번) 문항에서는 유의하게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문항들만을 <표 4>에 제시한다.

<표 4> 음악교육 시작연령 집단별 평균 차이

| 문항                   | M     |      |       |      | Sig.     |
|----------------------|-------|------|-------|------|----------|
|                      | 5세 이전 | 6~7세 | 8세 이후 | 전체   |          |
| 1. 소리에의 민감성          | 4.20  | 3.80 | 3.82  | 3.91 | 0.010**  |
| 3. 박자/리듬 감각          | 3.88  | 3.57 | 3.45  | 3.63 | 0.038*   |
| 4. 음높이 구분 및 음정 표현    | 4.12  | 3.76 | 3.43  | 3.78 | 0.001*** |
| 6. 음악 창작의 즐거움        | 3.76  | 3.34 | 3.00  | 3.37 | 0.005**  |
| 11. 가정의 음악적 자극 풍부함   | 3.78  | 3.34 | 3.20  | 3.43 | 0.032*   |
| 12. 가정의 음악 감상 기회 풍부함 | 3.84  | 3.25 | 3.18  | 3.39 | 0.006**  |
| 13. 가정에서 독보나 연주법배움   | 3.18  | 2.56 | 2.59  | 2.73 | 0.023*   |
| 17. 가족 연주로부터 감동 경험   | 2.84  | 2.23 | 2.09  | 2.36 | 0.009**  |
| 35. 대중 앞에서의 연주       | 3.82  | 3.33 | 3.07  | 3.40 | 0.004**  |
| 36. 음악적 재능에 관한 칭찬    | 4.06  | 3.93 | 3.57  | 3.88 | 0.018*   |

|                     |      |      |      |      |         |
|---------------------|------|------|------|------|---------|
| 37. 음악계 인사 만남 기회 정도 | 3.44 | 3.01 | 2.91 | 3.10 | 0.049*  |
| 38. 동료와의 공동 연주 기회   | 3.59 | 2.95 | 2.91 | 3.11 | 0.005** |
| 40. 동료 연주 관람        | 3.78 | 3.20 | 3.09 | 3.33 | 0.007** |

\* p&lt;.05, \*\* p&lt;.01, \*\*\* p&lt;.001

### 3) 전공 훈련 시작 연령

자신의 음악영재성 인식에 있어서 취학 전(7세 이전)에 전공 훈련을 시작한 학생들은 “음높이 구분 및 음정의 정확한 표현”(4번), “음높이, 음량, 음색 차이 구분”(5번), “음악창작의 즐거움”(6번)에서 다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가족 환경 인식에 관하여서는 음악의 전공 훈련을 시작한 연령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교사 환경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취학 전에 전공 훈련을 시작한 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량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사와”(30번),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조절”(31번)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환경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취학 전에 전문적 훈련을 시작한 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콩쿠르 자주 참여”(35번), “대중 앞에서의 연주 기회 정도”(36번), “음악적 재능에 대한 동료의 칭찬 및 인정”(40번)에 있어서 타 집단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문항들만을 <표 5>에 제시한다.

<표 5> 전문적 훈련 시작연령 집단별 평균 차이

| 문항               | M     |       |        |      | Sig.     |
|------------------|-------|-------|--------|------|----------|
|                  | 7세 이전 | 8~10세 | 11세 이후 | 전체   |          |
| 4. 음높이구분 및 음정표현  | 3.94  | 3.78  | 3.43   | 3.75 | 0.006**  |
| 5. 음높이/음량/음색 구분  | 3.77  | 3.65  | 3.22   | 3.58 | 0.003**  |
| 6. 음악 창작의 즐거움    | 3.69  | 3.28  | 3.02   | 3.37 | 0.002**  |
| 30. 기량 발전에 따른 교사 | 3.16  | 3.24  | 2.44   | 2.99 | 0.001*** |
| 31. 교육과정 조절하는 교사 | 3.88  | 3.99  | 3.52   | 3.82 | 0.029*   |
| 35. 콩쿠르 자주 참여    | 3.19  | 3.03  | 2.39   | 2.92 | 0.000*** |
| 36. 대중 앞에서의 연주   | 3.53  | 3.52  | 3.07   | 3.40 | 0.042*   |
| 40. 동료의 칭찬 및 인정  | 4.14  | 3.96  | 3.70   | 3.96 | 0.044*   |

\* p&lt;.05, \*\* p&lt;.01, \*\*\* p&lt;.001

#### 4) 연습 시간

자신의 음악성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하루 평균 연습 시간이 5-7시간 인 학생 집단은 “음악 연습을 오래 해도 힘들지 않음”(7번)과 “음악 진로에 대한 결심”(9번) 문항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연습을 8시간 이상 하는 집단은 “음악 연습을 오래 해도 힘들지 않음” 문항(7번)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집단의 표본수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 적었다. 가족 환경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는 하루 평균 연습시간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교사 환경에 관한 인식은 학생들의 하루 평균 연습시간 별 집단 차이가 드러났다. “인격적으로 이해해주는 교사와의 만남”(25번), “교사로부터의 영감 및 감동”(26번) 문항에서는 하루에 연습을 8시간 이상 하는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5-6시간 하는 집단이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하루에 연습을 8시간 이상 하는 집단은 표본수가 너무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전공교사의 음악이론/음악사 도움”(28번)에서는 연습을 5-6시간 하는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환경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연습을 5-6시간 하는 학생 집단은 “마스터클래스 참여”(34번)와 “음악계 인사와의 만남 기회 정도”(37번)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연습을 8시간 이상 하는 학생 집단은 “콩쿠르 자주 참여”(35번)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나 이 집단은 표본수가 너무 적어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는 연습을 5-6시간 하는 학생 집단에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연습을 1시간미만으로 하는 집단은 콩쿠르에 가장 자주 참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을 <표 6>에 제시한다.

&lt;표 6&gt; 연습시간 집단별 평균 차이

| 문항                      | M      |        |        |        |        |        | 전체   | Sig.     |
|-------------------------|--------|--------|--------|--------|--------|--------|------|----------|
|                         | 1시간 미만 | 1~2 시간 | 3~4 시간 | 5~6 시간 | 6~7 시간 | 8시간 이상 |      |          |
| 7. 음악 연습을 오래 해도 힘들지 않음  | 2.45   | 2.90   | 3.02   | 3.27   | 3.17   | 1.50   | 2.92 | 0.010*   |
| 9. 음악 진로에 대한 결심         | 3.21   | 3.87   | 4.13   | 4.27   | 4.00   | 3.50   | 3.92 | 0.002**  |
| 25. 인격적으로 이해해주는 교사와의 만남 | 3.45   | 4.28   | 4.25   | 4.40   | 3.83   | 4.50   | 4.16 | 0.000*** |
| 26. 교사로부터 영감획득          | 3.17   | 4.15   | 4.16   | 4.23   | 3.67   | 5.00   | 4.02 | 0.000*** |
| 28. 교사의 음악이론 도움         | 3.00   | 3.63   | 3.68   | 3.80   | 3.00   | 3.50   | 3.56 | 0.037*   |
| 30. 기량발전에 따른 교사         | 2.55   | 2.76   | 3.32   | 3.21   | 3.67   | 2.00   | 2.99 | 0.020*   |
| 31. 교육과정 조절하는 교사        | 3.10   | 3.87   | 3.97   | 4.10   | 3.83   | 4.00   | 3.83 | 0.002**  |
| 32. 기량 발달에 있어서의 교사의 도움  | 3.41   | 4.07   | 4.29   | 4.43   | 4.17   | 4.00   | 4.10 | 0.000*** |
| 34. 마스터 클래스 참여          | 1.55   | 2.15   | 2.42   | 3.80   | 1.50   | 3.00   | 2.39 | 0.011*   |
| 35. 콩쿠르 자주 참여           | 2.17   | 2.61   | 3.32   | 3.47   | 3.33   | 4.00   | 2.94 | 0.000*** |
| 38. 음악계 인사 만남 기회        | 2.75   | 2.94   | 3.24   | 3.63   | 2.33   | 2.00   | 3.09 | 0.009**  |

## V. 요약 및 결론

각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는 음악영재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음악 영재성, 특별히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나 음감과 리듬감 등 음 지각적 특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들은 가족 환경, 특별히 가족으로부터의 물질적·정서적 지원과 교사 환경, 특별히 교사로부터의 영감 및 감동 획득, 교사의 기량 발전 도움 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국내외 음악캠프나 마스터 클래스, 콩쿠르와 같은 사회적 기회에 관한 문항에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어, 외국에서 일반화된 이러한 기회가 국내 음악영재 교육대상자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전공 악기에 따른 분산분석의 결과는 네 가지 범주 모두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음악영재성에 있어서는 작곡 전공 집단이, 가정환경에 있어서는 성악 전공 집단이, 교사 환경과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는 피아노 전공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작곡 전공 집단은, 비록 모집단의 수적 비율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표본 크기가 너무 작다는 한계가 있다. 국악 전공 집단은 교사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었다.

음악교육 시작 연령 변인에 관한 분산분석에서, 음악교육을 어린 시절, 즉 유아기에 시작한 집단은 교사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에서 다른 집단보다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전공훈련 시작 연령 변인에 관해서는, 전공훈련을 어린 시절, 즉 취학 전에 시작한 집단이 가정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에서 다른 집단보다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 나이에 음악을 시작할수록 자신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습 변인별 분산분석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 집단(5-6시간)은 자신의 교사환경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도 힘들지 않다”는 문항과 “음악진로에 대한 결심” 문항에서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 이들은 음악캠프나 마스터 클래스와 같은 사회적 기회 환경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는 이들의 장래 진로에 관한 결심이 이들의 연습시간, 연습에 대한 헌신, 사회적 기회의 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러나 연습시간은 학생들의 가족 환경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즉 연습시간이 길다고 해서 특별히 자신의 가족 환경이 좋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은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나 교사의 다면적 지원과 같은 인적 환경에 대하여서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가정의 음악적 환경이나 사회적 기회와 같은 조직적·사회적 환경에 대하여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음악 영재학생이 다른 영재학생과 만나 연주하고 교류하는 사회적 기회의 부여

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해외의 음악영재학생들은 이런 기회에서 유익을 얻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in and Harrington, 2007; Sosniak, 1985a). 이와 같은 사회적 기회가 해외의 음악영재학생에게 유익하다면, 국내의 음악영재학생을 위해서도 더 많은 음악캠프, 마스터클래스, 연주 기회 및 선배나 동료 음악가와의 만남의 기회가 주어져서, 이들이 음악적으로 자극받고 격려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악영재기관이나 정책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회를 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영신 (2009). 음악영재 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수업내용 및 평가방안. **예술교육연구**. 7(2). 149-162.
- 김용희 (2010). 음악영재아동의 특성 및 교육. **홀리스틱교육연구**. 14(2). 43-62.
- 성경희 (2005). 예술·문화기반 사회와 음악영재 교육. **한국예술영재학회. 예술영재교육**. 서울: 미진사.
- 태진미 (2006). **음악영재교육**. 서울: 예종.
- 오주일 (2004).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분석을 통한 음악영재성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2005). 최근에 일고 있는 음악영재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음악과 민족**. (29). 255-275.
- 이미경 (2010a). 음악영재선발의 실태분석과 과제. **음악과 민족**. 40. 235-256.
- 이미경 (2010b).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현황. **음악교육연구**. 39. 157-182.
- 현경실 (2005). 음악영재의 이해와 선발. **한국예술영재학회(편), 영재교육의 방법**. (pp. 136-181). 서울: 미진사.

- Bloom, B. (ed.).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entine Books.
- Chin, C. and Harrington, D. (2007).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Musical Talent. *Gifted Child Today*. 30(1). 39-65.
- Chin, C. and Harrington, D. (2009). Innerspark: A creative summer school and artistic community for teens with visual arts talent. *Gifted Child Today*, 32 (1), p.14-22.
- Dai D. Y. and Schader, R. M. (2002). 음악훈련의 결정: 부모의 신념과 가치. In E. Zimmerman (Ed.) *예술 · 음악 영재학생* (pp. 47-69). 강갑원, 김정희, 김혜숙 역. 서울: 학지사.
- Distin, K (Ed.). (2006). *Gifted Children. A Guide for Parents and Professionals*.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Ericsson, K., Nandagopal, K. and Roring, R. (2005). Giftedness viewed from the expert performance. *Perspective. Journal of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8(3-4). 287-311.
- Freeman, C. (1999). 결정 경험: 음악조속성에 관한 연구. In E. Zimmerman (Ed.) *예술 · 음악 영재학생* (pp. 97-122). 강갑원, 김정희, 김혜숙 역. 서울: 학지사.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New York: BasicBooks.
- Gross, M. (1994). Radical acceleration: Responding academic and social needs of extremely gifted adolescents. [http://www.dividsongifted.org/db/Articles\\_id\\_10117.aspx](http://www.dividsongifted.org/db/Articles_id_10117.aspx). 2011년 11월 17일.
- Harris, M. (2009). *Music and the young mind. Enhancing brain development and engaging learning*. Plymouth, UK: Rowman and Littlefield Education.
- Kozinn, A. (2002, March 26). Dorothy DeLay, Teacher of Many of the World's Leading Violinists, Dies at 84, New York Times.
- Mareck-Schroer, M. and Schroer, N. (1993). Identifying and providing for musically gifted young children. *Roeper Review*. 16(1). 33-36.

- Rusatz, J., Detterman, D., Griscom, W. and Cirullo, B. A. (2008). Becoming an expert in the musical domain: It takes just more than practice. *Intelligence*. 36. 330-338.
- Sand, B. L. (2000). *Teaching genius. Dorothy DeLay and the making of a musician*. Pompton Plains, NJ: Amadeus Press LLC.
- Solomon, M. (1995). *Mozart: a lif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Sosniak, L. A. (1985a). Learning to be a concert pianist. In B. S. Bloom (Ed.)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pp. 19-67). New York: Ballentine.
- Sosniak, L. A. (1985b). One concert pianist. In B. S. Bloom (Ed.)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pp. 68-89). New York: Ballentine.
- Sternberg, R. (1982). Nonentrenchment in the assessment of intellectual giftedness. *Gifted Child Quarterly*, 26(2), 63-67.
- Shuter, R. (1968). *The Psychology of Musical Ability*. London: Methuen.
- Shuter-Dyson, R., & Gabriel, C. (1981). *The Psychology of Musical Ability* (2nd ed.). London: Methuen.
- Winner, B. (2002). Uncommon talents: Gifted children, prodigies and savants. *Scientific American Present*, 32-37.
- Wojick, J. (2002). Musical talent: Innate or learned? *Duke Gifted Letter*, 3(1).
- Wright, B. (2002). Performing Arts Instruction for Exceptionally and Profoundly Gifted Children. [http://www.hoagiesgifted.org/performing\\_arts.htm](http://www.hoagiesgifted.org/performing_arts.htm). 2011년 11월 17일.
- Zimmerman, E. (2008). *예술 · 음악 영재학생*(강갑원, 김정희, 김혜숙 역). 서울: 학지사.

## ABSTRACT

# The Musically Talented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Environments and the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Subgroups

Kim, Yong-He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ived environments and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subgroups of 202 musically talented students enrolled in 12 public institutes for the musically gifted and talented in Korea. The subgroups are divided based on the variables of major instruments, initial age of music education, initial age of professional training, and practice time per day.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showed positive perception about the economical and emotional support from their families and musical and emotional help from their teachers. However, they did not have positive perception about direct musical help from their families and social chances such as music camp and master classes. The ANOVA analysis of the subgroups suggested that the variables of age, major instrument, the initial age of music education, the initial age of professional training and practice time had influences on their environmental perceptions. Findings of this study also have implication that the social chances for the musically talented need to be expanded.

key words: musically talented,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투고일: 9월 28일, 심사(수정)일: 10월 30일(11월 17일), 게재확정일: 11월 28일